

遜庵 申晟圭의 『論語講義』 연구

崔錫起*

■ 차례 ■

- I. 머리말
- II. 學問的 志向과 成就
 - 1. 學問的 志向
 - 2. 學問的 成就
- III. 『論語講義』의 體制構成과 解釋性向
 - 1. 『近思錄』을 본뜬 體制改編
 - 2. 按說을 통해 본 解釋性向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遜庵 申晟圭의 『論語講義』를 분석하여 그 특징과 의의를 고찰한 것으로, 요지는 아래와 같다.

손암의 『논어강의』는 그가 평생의 정력을 바쳐 이룩한 학문적 성과라 할 수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특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자의 『논어집주』를 저본으로 하여 『근사록』의 체제를 본떠 17개 주제에 맞추어 체제를 개편하였다. 이는 『논어』를 해체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종전에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경

*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우이다. 둘째, 1章을 分章하여 내용 중심으로 재배치하기도 하였다. 이는 종래의 『논어』를 내용 중심으로 일부 개정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셋째, 주자의 『논어집주』를 위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대전본 소주 및 陸九淵·歸有光 등의 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논어집주』의 설만을 추종하지 않고 폭넓게 다양한 설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전대의 설 가운데 본지를 밝힌 설 위주로 취사선택하고 있다. 이는 『논어집주』의 설 가운데서 다시 선택한 것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다섯째, 자신의 견해를 按說로 附記하여 본지를 더 심도 있게 해석하였다. 이는 종래의 설을 바탕으로 새롭게 의리를 발명해 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특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종래 해석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지를 더 명확히 해석하거나 심도 있게 해석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둘째, 독자적으로 의리를 발명한 것이 다수 있다. 그 가운데는 자득을 통해 본지를 해석한 것, 문맥을 중시하여 본지를 해석한 것, 언외의 본지를 탐구한 것 등이 있다. 이는 전인이 밝히지 못한 의리나 본지를 새롭게 발명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셋째, 『논어집주』와 다른 해석을 한 것이 다수 있다. 그 가운데는 程子·朱子の 설과 다른 해석, 諸家說과 다른 해석, 『논어집주』 이외의 설을 제시한 것 등이 있다. 이는 손암의 『논어강의』 해석이 『논어집주』의 설만을 추종하지 않고 異見을 제시하거나 異說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의 폭이 넓고 다양해졌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논어강의』의 해석의 특징은 경학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종래의 『논어』를 해체하여 『근사록』의 체제를 본떠 재구성한 유일한 작품이다. 우리나라 『논어』 해석사에서 종래의 『논어』를 해체하여 재구성한 것이 없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旅軒 張顯光(1554-1637)의 「論語圖」에 各章을 내용 중심으로 분류해 도표로 그려놓은 것이 유일한데, 손암은 내용 중심으로 도표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근사록』의 체제를 본떠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논어』해석사에서도 전에 없던 해석이다. 둘째, 주자의 『논어집주』를 근간으로 하여 본지에 적합한 설을 취사선택하였다. 이는 집주의 諸說 중에서 다시 가려 뽑아 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주자의 『논어집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주

자의 설만을 절대존신하던 학풍 속에서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한 사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심층적으로 본지를 해석하거나 독자적으로 의리를 발명하여 『논어』 해석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였다. 이는 『논어』 해석이 근대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시야를 열어놓은 것이다.

주제어

申晟圭, 論語講義, 近思錄, 體制改編, 義理發明, 深層解釋.

I. 머리말

19세기 후반 경남 지역에는 학문이 蔚興하여 여러 學團이 형성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許傳(1797-1886)의 性齋學團, 李震相(1818-1886)의 寒洲學團, 奇正鎭(1798-1879)의 蘆沙學團이다. 이 가운데 성재학단의 경우 『冷泉及門錄』에 수록된 경남 지역 문인만 해도 25개 지역 354명이나 된다.¹⁾ 경남 지역 성재 문인은 김해·함안·의령·진주·산청 등지에 주로 분포해 있는데, 김해·밀양 지역에서는 小訥 盧相稷(1855-1931), 禮岡 安彦浩(1853-1934), 錦洲 許埰(1859-1935) 등이 중망을 받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遜庵 申晟圭(1905-1971)도 그러한 학풍 속에서 노상직과 허채에게 수학한 인물이다. 신성규의 자는 聖日, 호는 遜庵, 본관은 平山으로, 1905년 7월 22일 密陽 鍾浦里 본가에서 태어났다. 손암은 南冥 曹植과 친했던 松溪 申季誠의 후손으로, 부친은 申泰郁, 모친

1) 강동욱, 『性齋 許傳의 江右地域 門人 考察』, 『남명학연구』 제31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1, 208쪽.

은 孫亮賢의 딸 一直孫氏이다.

손암은 일제침략시기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통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아 『論語講義』 및 성리학에 관한 학설을 남겼다. 20세기 출생한 인물 가운데 한문으로 위와 같은 학술적인 글을 남긴 학자는 흔치 않다. 게다가 손암의 학설을 일별해 보면, 전통학문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실세계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본고는 손암의 저술 가운데 『논어강의』를 분석하여 경학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어강의』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논어』를 해체하여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한국경학사상 그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 『논어강의』는 『遜庵集』 권5~6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주 자료로 활용하여 종래의 해석과 비교 검토해서 그 특징과 의의를 구명하고자 한다.

II. 學問的 志向과 成就

1. 學問的 志向

손암은 어려서 가정에서 수학한 뒤, 17세 때부터 노상직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다시 허채의 문하에 나아가 心法을 얻어들었고, 李炳憲(1859-1938)를 중유하며 학문의 요체를 물었다. 노상직·허채는 허전의 문인으로 성호학통을 계승한 인물이며, 이병희도 성호학을 계승한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손암의 학문은 영남에 전해진 성호학을 근간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손암은 어려서 立志와 氣節을 온축함이 있어야 諸葛亮·范仲淹·李舜臣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志氣를 기르려고 평생 노력하였다. 손암이 일제침략시기 말 대덕산으로 숨어들어 곤궁하게 살면서도 태연한 마음을 유지했던 것, 1965년 한일수교 때 「韓日國交反對建議書」를 작성한 것 등은 그가 어려서부터 쌓아온 지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손암은 늙어서도 부지런히 경전을 탐구하였는데, 특히 사서 및 『주역』·『근사록』·『西銘』 등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리고 의약·천문·지리 등의 서적도 섭렵하여 실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인용문을 보면 손암의 학문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선생은 늘그막에 이르러 『주역』·『중용』·『대학』·『논어』·『맹자』·『근사록』·『西銘』 등에 더욱 익숙하였는데, 반드시 깊이 나아가 自得하여 자신에게서 그 뜻을 體得하길 구하였다. -중략- 일찍이 저술을 기뻐하지 않으며 말씀하기를 “요즘 세상의 士類들은 經書의 심오한 뜻에 대해서는 감감하면서도 오히려 文章을 지어 쌓아둔 것이 여러 권이나 된다. 이 무슨 재주란 말인가. 모든 일은 內實로써 행하더라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걱정인데, 어찌 外飾을 힘쓰고 거짓을 수식하여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달 말인가. 아! 슬프구나.”라고 하셨다.²⁾

이처럼 손암은 전통학문을 배워 문장이나 지으며 修辭에만 힘쓰는 풍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으며, 경서의 심오한 本旨를 밝혀 자신의 몸에서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제로 20세기 이후 출생한 한학자들은

2) 申晟圭, 『遜庵集』 권9, 附錄, 申鉉稷 撰 「家狀」, “到老屹屹 而尤熟於義易庸學語孟西銘近思錄等書 必求深造自得 而體之于身 -중략- 嘗不喜著述曰 今世之士 其於經義蘊奧 則懵然 而猶撰述文字 積成卷帙 此何等技倆也耶 凡事以實行之 猶患不逮 豈可務外飾詐 以自欺而欺人哉 嗚乎痛哉”

대개 한문으로 글을 짓거나 고전을 풀이하는 정도였지, 경학이나 성리학에 관한 설을 남긴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손암의 지적은 당대 학풍을 통찰하고 학문의 본령을 자각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지향은, 星湖 李瀾이 本旨探究를 통해 自得을 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實踐을 하거나 實用을 하고자 한 학문정신과 그 맥락이 닿아 있다.³⁾

2. 學問的 成就

손암의 학문에 대한 후인들의 평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古文에 능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經學에 조예가 깊었다는 것이다. 전자는 문장가로서 고문을 성취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경학가로서 경학연구에 조예가 깊었다는 것이다.

문학적 성취에 대해 李佑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세 이후로 우리 영남에서 문장을 짓는 자들은 功令文에 골몰하고 講學과 혼돈하여 문장이 날로 낮아졌다. 深齋 曹氏(曹兢燮)에 이르러 비루한 습관을 한 번 씻어내 비로소 고문의 법칙을 회복하였다. 그 풍상이 미치는 곳에서 공은 龍門(李濶雨)·護石(許涉) 등 여러 군자들과 唐宋古文에 힘을 쏟아 부지런히 그 義法을 구하며 시골에서 학문을 궁구하는 투의 문장 짓기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의 벗 가운데 문장으로만 흘러간 자들은 자못 曠達을 일삼았으나, 공은 곧 옛 법규를 삼가 지켜 操行을 더욱 돈독하게 하였다. 이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다.⁴⁾

3) 최석기, 『星湖의 大學·中庸 解釋과 意味』, 『성호 이익 연구』, 사람의무늬, 2012, 22~37쪽.

4) 申晟圭, 『遜庵集』 권9, 附錄, 李佑成 撰 「墓碣銘並書」. “自中世以降 吾嶺之爲文者 汨於

또한 李相學은 “대개 마음속에 쌓인 것이 진실했기 때문에 발하여 시문이 된 것이 清新俊逸하며 雄健溫厚하여, 보통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점이 있다.”⁵⁾라고 하여, 손암의 고문에 대해 清新俊逸·雄健溫厚로 평하였다.

이러한 논평을 종합하면, 손암은 당송고문을 근간으로 한 문장가로, 문장이 청신준일하고 웅건온후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손암의 경학적 성취에 대해 이상학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또 『論語講義』 2권을 저술하였는데 견해가 정밀하고 적확하며, 종종 전인들이 발명하지 못한 바를 발명하였다. 그러니 거의 공자께서 이른바 ‘옛 것을 충분히 익히고서 새것을 안 사람’일 것이다.⁶⁾

이러한 평은 선현의 설을 墨守하지 않고 새로운 義理를 발명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주자학만을 존신하던 풍조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후기 학풍은 대체로 주자학을 절대존신하여 매우 경직되어 있었는데, 근기 남인계 일부 학자들이 이런 점을 반성하면서 의리 발명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전통학문을 하던 학자들은 거의 주자학만을 추종하였는데, 손암이 새로운 의리를 발명하고자 했다는 것은 경학사적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또한 이상학은 손암의 문학적 성취보다 경학적 성취에 더 의미를 부

功令 混於講學 文日以卑下 至深齋曹氏 一洗陋習 始復古文軌則 風尚所及 公與龍門護石諸子 竝致力於唐宋 勉求其義法 不屑爲鄉曲學究之文焉 然公之儕友中 流於文者 頗事曠達而公則謹守古規 操履益篤 此其尤難者也”

5) 申晟圭, 『遜庵集』 권9, 附錄, 李相學 撰 「跋」, “蓋其積於中者眞實 故發而爲詩文者 清新俊逸 雄健溫厚 有非常人之所可企及者”

6) 上同. “又著論語講義二卷 見解精確 往往發前人所未發 殆夫子所謂溫故而知新者也”

여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선생의 학문은 근본을 돈독히 하고 의리를 좋아하였으니, 문장은 선생이 숭상한 바가 아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그 詩文의 淸高함을 일컬을 뿐, 일생의 정밀한 공부가 『論語講義』에 있음을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특별히 표출해 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선생의 글은 모두 성인의 경전에 근본 하였음을 알게 한다.⁷⁾

이러한 이상학의 견해는 손암의 학문적 성취를 문학에 국한시키지 않고, 경학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논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손암의 성취 가운데 『논어강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연 으뜸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손암집』 간행을 주선한 申鉉稷은 손암의 학문에 대해 “선생은 孝友로 근본을 삼고, 문장으로 말단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평소 저술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선생의 득력처는 오직 『논어』 한 책이었다. 만년에 『논어강의』 2권을 지으시고 조석으로 손에 놓지 않으셨다.”⁸⁾라고 하였다.

이런 언급을 보면, 문학적 측면에서 손암은 당송고문을 추구한 문장가였지만, 문학만을 주로 한 문장가가 아니고 경서를 연구한 경학가이며, 그 중에서도 『논어』를 심도 있게 연구한 『논어』 연구자라고 하겠다.

7) 上同. “余惟先生之學 惇本好義 文章 非其所向也 而人但稱其詩文之淸高 而不知其一生之精工 盡在於講義 故余特表而出之 使知先生之文皆本於聖經也”

8) 申晟圭, 『遜庵集』 권9, 附錄, 申鉉稷 撰 「跋」. “然以孝友爲本 文章爲末 故平居不喜著述 其得力處 惟在論語一書 晚作講義二卷 朝夕不釋手”

Ⅲ. 『論語講義』의 體制構成과 解釋性向

1. 『近思錄』을 본뜬 體制改編

『논어』의 편찬시기와 편찬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근래 학자들은 춘추 말기에 曾參과 有若의 문인들이 편찬한 것으로 보고 있다.⁹⁾ 『논어』의 판본은 今文과 古文 두 종류가 있다. 금문으로는 前漢 때 魯나라 사람이 전한 『魯論』과 齊나라 사람이 전한 『齊論』이 있고, 고문으로는 前漢 武帝 때 孔壁에서 나온 『古論』이 있다. 전한 成帝의 師傅를 지낸 張禹는 『노론』과 『제론』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를 ‘張侯論’이라 불렀다.¹⁰⁾ 장우는 당시 영향력이 커서 그가 편찬한 『논어』가 널리 읽혔다. 이후 장우가 만든 책에 鄭玄이 주를 단 『논어』가 세상에 전해졌다. 남송 때 만든 十三經注疏本の 『論語注疏』는 이 책에 何晏의 集解와 邢昺의 疏를 합해 놓은 것이다.

송나라 때 朱子は 장우가 전한 『논어』를 의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論語集註』를 저술했는데, 주로 송대 학자들의 설을 취하고 舊說은 부분적으로 취하였다. 명나라 永樂年間に 만들어진 『論語集註大全』은 주자의 『논어집주』를 저본으로 하고 주자학파의 설을 小註에 수록하여 편찬한 책인데, 조선 세종 때 이 책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교과서로 정착되었다.

9) 蔣伯潛은 『經與經學』(上海書店出版社, 1997)에서 『논어』 편찬자를 有若과 曾參의 문인들로 추정하였고, 楊伯俊은 『論語譯注』(中華書局, 1980)에서 증삼의 문인들로 보았다.

10) 魏徵 등, 『隋書』 「經籍志」. “張禹本授魯論 晚講齊論 後遂合而考之 刪其煩惑 除去齊論 問王知道二篇 從魯論二十篇爲定 號曰張侯論”

주자의 『논어집주』에는 각 편의 앞에 大旨을 언급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전편에 대해 모두 언급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각 편의 내용이 다양하여 하나로 요지를 적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송대 학자들은 경전의 본지를 탐구하기 위해 종래 訓詁 중심의 注疏에 얽매이지 않고 義理 위주의 해석을 하였지만, 『大學』의 경우처럼 체제를 새롭게 개편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손암은 『논어』의 체제에 구애 받지 않고 章別로 요지를 파악한 뒤, 朱子와 呂祖謙이 만든 『近思錄』의 체제를 본떠 17개 항목으로 주제를 나누고, 그 속에 각 장을 차례로 배열하여 새롭게 편차를 정하였다. 이 책이 그가 평생 정력을 기울여 편찬한 『논어강의』이다. 이를 『근사록』의 체제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근사록』과 『논어강의』의 篇目 비교>

近思錄			論語講義		
01	性之本原 道之體統	51조	01	言道之統體	10장
02	爲學之要	111조	02	言仁	44장
			03	言禮樂	20장
			04	言學	51장
03	致知	78조	05	言致知	53장
04	存養	70조	06	言存養	21장
05	力行	41조	07	言力行	39장
			08	言君子	31장
06	齊家	22	09	言齊家	28장
			10	言交友	23장
07	出處之道	39조	11	言出處交際	44장
08	治道	25조	12	言治道	20장
09	治法	27조	13	言治法	21장

10	臨政處事	64조	14	言臨政處事	27장
			15	言世道	13장
11	教人之道	21조	16	言教人之道	26장
12	戒謹之道	33조			
13	異端	14조			
14	聖賢諸子	26조	17	言聖賢相傳之統	12장
계		622조			483장

『근사록』은 주자와 여조겸이 1175년 周敦頤·程顥·程頤·張載의 언설 중 道體에 적합하고 日常의 가까운 데서 절실히 생각해야 할 것들을 뽑아 만든 성리학 입문서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宋代의 『논어』’라고 불렀다. 주자는 이를 다시 6개 강령으로 나누어 제1편은 求端, 제2편~제4편은 用力, 제5편~제7편은 處己, 제8편~제12편은 治人, 제13편은 辨異端, 제14편은 觀聖賢 구분하였다. 이는 초학자들이 공부하는 절차와 요령을 간명하게 체계화한 것이다. 또 주자의 재전문인 葉采는 1248년 주해본 『近思錄集解』를 편찬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 『근사록』과 『근사록집해』가 유입되어 송대 성리학을 배우는 기본서적이 되었는데, 1370년(공민왕 19)부터 『근사록』이 간행되어 읽히기 시작했고, 조선시대에는 사서와 함께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

위의 도표를 보면 손암의 『논어강의』는 『근사록』의 체제를 본떠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논어』의 내용을 『근사록』의 篇目에 그대로 대입시킬 수 없기 때문에 편목을 일부 늘릴 수밖에 없었고, 또 편명도 주제에 맞게 세분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손암이 이와 같이 개편한 이유는, 복잡한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근사록』처럼

만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기왕의 『논어』는 한 편 안에 다양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학문의 요령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손암은 『논어』도 그와 같이 내용 중심으로 주제어를 정해 재편하고자 한 것이다.¹¹⁾

기왕에 전래된 『논어』는 총 499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손암의 『논어강의』에는 총 483장만 수록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논어강의』의 각장을 『논어집주』에 대조하여 정리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손암의 『논어강의』에는 원래 중복되어 나오는 「이인」 제20장, 「자한」 제24장, 「양화」 제17장 등 3장이 빠져 있다. 둘째, 손암의 『논어강의』에는 「학이」 제12장, 「팔일」 제15장·제19장, 「이인」 제24장, 「공야장」 제26장, 「자한」 제11장·제17장, 「향당」 제14장, 「선진」 제11장, 「안연」 제4장·제10장, 「위령공」 제12장·제26장, 「자장」 제1장, 「요왈」 제3장 등 총 15장이 누락되어 있다. 이 15장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분류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1장을 이중으로 두 군데 수록한 경우가 있다. 「이인」 제8장과 「용야」 제15장은 제5편 「言致知」와 제7편 「言力行」에 모두 편입되어 있다. 넷째, 1장을 내용 중심으로 분장한 것이 있다. 「학이」 제2장과 「이인」 제5장은 분장하여 2장으로 하였다. 다섯째, 1장을 분장하여 다른 조항에 수록한 경우가 있

11) 심사 과정에서 ‘왜 『근사록』의 체제를 본떠 17개 주제로 재구성하였는지를 정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근사록』을 주자가 求端, 用力, 處己, 治人, 辨異端, 觀聖賢 등으로 분류하여 학문의 길을 차례로 제시한 것처럼, 손암도 『논어』를 이와 같은 체제로 분류 편집하여 학문의 요령을 얻기 쉽게 하고자 한 것이지, 각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을 『근사록』과 연관해서 재구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논어강의』의 齊家와 『근사록』의 齊家를 상호 비교해 그 내용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 「태백」 제2장은 「言禮樂」과 「言治道」에, 「향당」 제11장은 「言存養」과 「言臨政處事」에, 「향당」 제10장은 「言齊家」와 「言交友」에 나누어 실었다. 또한 「향당」 제7장은 分節하여 「言存養」의 제7장과 제8장에 붙여놓았다.

『논어집주』 총 499장 가운데, 『논어강의』에 누락된 15장과 중복되어 뺀 3장을 제외하면 모두 481장이 된다. 여기에 이중으로 수록한 2장을 빼고, 분장한 2장을 더하며, 분장하여 다른 조항에 수록한 3장을 더하고, 分節하여 다른 장에 붙여놓아 없어진 1장을 제외하면 총 483장이 된다.

『논어강의』의 체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편찬자의 관점으로 各篇의 章次를 배열하였다. 그 차례는 근본적이거나 중요한 내용 순으로 앞에서부터 배열하였다. 둘째, 1장 안에 서로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分章하였다. 예컨대, 「학이」 제2장 후반부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를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삼고 曾子の 말로 본 경우이다. 셋째, 註解는 주자의 『논어집주』의 설을 근본으로 취사선택하되 각장의 본지를 잘 드러내는 주석만 선별해 실었다. 그리하여 주자의 주석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설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 채록하였다. 넷째, 『논어집주대전』의 소주에 실린 설 가운데서도 취한 것이 있다. 다섯째, 陸九淵의 설과 명나라 때 歸有光의 설을 인용한 것이 각각 1번씩 있다. 또한 동시대 학자 李相學의 설을 수용한 것도 있다. 여섯째, 주석은 인용한 뒤 편저자인 손암의 견해를 按說로 기록해 놓았는데, 총 299조항이다. 전체 481장 가운데 299조의 안설을 달았으니, 약 62%에 대해 자기의 견해를 개진한 것이다. 일곱째, 어떤 장에는 전대의 주석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按說만을 기록해 놓은 경우도 있다. 여덟째, 전대의 주석이나 안설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대체로 본

문 해석에 별다른 異說이 있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손암의 『논어강의』의 특징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자의 『논어집주』를 저본으로 하여 『근사록』의 체제를 본떠 17개 주제에 맞추어 체제를 개편하였다. 이는 『논어』를 해체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전에 볼 수 없던 매우 독특한 경우이다. 둘째, 필요한 경우 1장을 分章하여 내용 중심으로 재배치하였다. 이는 종래의 『논어』를 일부 改定한 것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주자의 『논어집주』의 설을 위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대전본 소주의 설 및 육구연·귀유광의 설까지도 취하고 있다. 이는 주자의 『논어집주』의 설만을 추종하지 않고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설을 받아들여려는 사유를 반영한 것이다. 넷째, 전대의 설 가운데 본지를 밝힌 설을 위주로 채택을 하고 있다. 이는 『논어집주』의 설 가운데서 다시 선택한 것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다섯째, 자신의 견해가 있을 경우 按說을 붙여 그 의미를 보충하였다. 이 부분이 손암의 『논어강의』의 성향과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지점이다.

2. 按說을 통해 본 解釋性向

1) 深層的 本旨解釋

가) 意味把握

손암의 按說에는 문장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읽어내려는 의도가 보인다. 「微子」 제8장에 “逸民 伯夷 叔齊 虞仲 夷逸 朱張 柳下惠 少連”이라 하였는데, 주자의 집주에는 “逸 遺 逸民者 無位之稱也”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손암은 “지위가 있을 수 있는데 등용되지 못하여 버려진 사람을 일

민이라 한다.”¹²⁾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은 ‘逸民’의 개념을 ‘벼슬자리가 없는 사람’으로 본 주자의 설이 범범하다고 여겨, ‘벼슬자리에 나갈 만한 학덕이 있는데도 버려진 사람’으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또 「公冶長」 제21장에 “子在陳曰 歸與歸與 吾黨之小子狂簡 斐然成章 不知所以裁之”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집주에는 “此孔子周流四方 道不行 而思歸之歎也……成章 言其文理成就 有可觀者……”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석은 공자가 도를 펼 수 없게 되자 후학을 성취시켜 후세에 도를 전하고자 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도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손암은 그런 설을 수용하면서도 문장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해석하여 “成章’은 비단을 짜서 완성한 것과 같고, ‘不知所以裁之’는 의복을 만드는 데 그 제도를 모르는 것과 같다.”¹³⁾라고 하였다. ‘비단을 짜서 완성한 것과 같다’고 한 것은 학문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의복을 만드는 데 그 제도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은 현실에 맞게 응용할 줄 모른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문장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손암은 본문뿐만 아니라, 주자의 주에 대해서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을 발견하면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였다. 「季氏」 제13장에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未也 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 他日 又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禮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立也 鯉退而學禮”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집주에는 “事理通達 而心氣知平 故能言 品節詳明 而德性堅定 故能立”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 손암은

12)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出處交際」 제41장. “按 可以有位矣而遺逸者 曰 逸民”

13)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教人之道」 제1장. “成章 如織錦而成 不知所裁 如衣服不知其制度”

“사리에 통달하여 비유를 잘하기 때문에 능히 말하고, 志氣를 안정시켜 筋骨을 견고히 했기 때문에 능히 自立할 수 있는 것이다.”¹⁴⁾라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은 ‘能言’과 ‘能立’의 의미를 주자처럼 心性에 나아가 관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생활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측면에 나아가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명확히 다가온다.

나) 意味分析

손암의 안설에는 본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더 깊이 해석한 것이 있다. 「향당」 제6장에는 “君子 不以紺緇飾……” 이하 11절에 걸쳐 공자의 의복제도를 기록해 놓았다. 이 장 끝에 주자는 “此一節記孔子衣服之制”라고만 주석해 놓았다. 그런데 손암은 “이상은 공자께서 衣服으로써 威儀를 기른 일을 말한 것이다.”¹⁵⁾라고 하였다. 즉 단순히 공자의 의복제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의복을 갖추어 입음으로써 몸가짐과 품위에 맞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해석 역시 주자의 주석보다 심층적으로 그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손암의 설에는 주자의 설과 달리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경우도 있다. 「衛靈公」 제2장에 “子曰 賜也 女以予爲多學而識之者與 對曰 然 非與 曰 非也 予一以貫之”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집주에는 “愚按 夫子之於子貢 屢有以發之 而他人不與焉 則顏曾以下諸子所學之淺深 又可見矣”라고 하였다. 이 집주의 ‘夫子之於子貢 屢有以發之’는 「헌문」 제37장에 “子曰 莫我知也夫 子

14) 申晟圭, 『遜庵集』 권5, 『論語講義』 「言齊家」 제12장. “達於事理 而長於比喻 故能言定其志氣 而固其筋骨 故能立”

15) 申晟圭, 『遜庵集』 권5, 『論語講義』 「言存養」 제7장. “右言衣服以養威儀”

貢曰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라고 한 것과 「양화」 제19장에 “子曰 予欲無言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이 2장에 대해 주자는 “蓋在孔門 惟子貢之智 幾足以及此 故特語以發之 惜乎 其猶有所未達也”라고 해석하고, 또 “此亦開示子貢之切 惜乎 其終不喻也”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손암은 이를 더 심층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드러냈다.

부자께서 평소 문인들을 가르치신 것은 학문 외에 다른 일이 없었는데, 지금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자공이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아닙니까?”라고 하였는데 부자께서 단정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대개 성인은 하나의 이치가 유통하여 저절로 합치된 경우이니, 다른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해한 것과는 같지 않다. 성인 이하의 사람들은 학문을 쌓은 공이 지극해진 뒤에야 이치가 순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치가 순한 경지에 이르면 또한 끊임없이 솟아나게 된다. 자공만이 거의 이런 데에 가까웠기 때문에 부자께서 그를 불러 일러주신 것이다.¹⁶⁾

이러한 해석은 주자의 설과 다르지만, 주자의 설을 바탕으로 자공의 학문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분석한 것이다. 주자는 자공이 공자가 계발해 준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손암은 공자가 누차 자공에게 이런 말을 해준 것은 그가 顔回·曾參의 다음으로 높은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를 깨우쳐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 「천문」 제23장에 “子路問事君 子曰 勿欺也 而犯之”라고 하였는데,

16) 申晟圭, 『遜庵集』 권5, 『論語講義』 「言道之統體」 제3장. “夫子平日教門人者 唯學之外 無他事也 而今忽發此言 子貢 安得不疑乎 故曰非與 而夫子斷然曰非也 蓋聖人一理流通 自然湊合 非如他人之件件理會也 自聖人以下 須積學功至 而後可到理順之境 到理順之境 則亦源源而來 唯子貢庶夷近之 故夫子呼而告之”

『논어강의』에는 대전본 소주에 보이는 주자의 “以使門人爲臣一事觀之 子路之好勇必勝 恐未免於欺也”라는 1절만 인용해 놓았다. 이 설은 「자한」 제9장에 나오는 “子疾病 子路使門人爲臣……”을 인용하여 자로가 임금을 속일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손암은 “자로는 의리에 용감하였으니, 어찌 고의로 임금을 속이는 일을 하겠는가. 혹 이치에 밝지 못한 점이 있어서 자신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는 죄과에 빠지는 경우는 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속이지 말라고 일러주신 것이다.”¹⁷⁾라고 해석하였다. 주자는 자로가 용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임금을 속이는 일을 면치 못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손암은 자로가 이치에 밝지 못한 점이 있어 임금을 속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손암의 해석은 주자의 설과 다르지만, 주자의 설에 비해 훨씬 심도 있게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2) 獨自的 義理發明

손암의 按說에는 독자적으로 의리를 발명한 것이 상당수 눈에 띈다. 그 가운데는 自得을 통해 本旨를 해석한 것, 文脈을 중시하여 본지를 해석한 것, 言外의 본지를 탐구한 것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7)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臨政處事」 제15장. “子路勇於義 豈故爲欺君之事 或理有所不明 而陷於自欺欺君之科 則未必保其不然 故以勿欺告之”

가) 自得을 통한 本旨探究

「위정」 제4장에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라고 하였는데, 집주에는 아래와 같은 程子·朱子の 설이 실려 있다.

- 程子曰 孔子自言其進德之序如此者 聖人未必然 但爲學者立法 使之盈科而後進 成章而後達耳
- 朱子曰 聖人生知安行 固無積累之漸 然其心未嘗自謂己至此也 是其日用之間 必有獨覺其進 而人不及知者 故因其近似而自名 欲學者以是爲則而自勉 非心實自聖而姑爲是退托也

손암은 이러한 집주의 설을 인용하고서 아래와 같은 자신의 안설을 부기해 놓았다.

志는 마음을 오로지 하여 그 일을 극진히 하는 것을 말하고, 學은 본받고 깨닫는 것이니 이는 선각자가 하는 것을 본받는 데에 전심하여 도를 자각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立은 道와 함께 서는 것이니, 도에 자립함이 있으면 그만두고자 해도 그럴 수가 없어서 그의 진보에 중지함을 용납하지 않음이 있다. 不惑은 道理를 깨달아서 의혹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知天命은 사물의 본말과 곡절에 대해 통달하지 않음이 없어서 얕이 그 지극함을 극진히 하는 것이다. 耳順은 인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도 터득하는 것이다. 從心所欲不踰矩는 마음이 곧 이치이고 욕구가 곧 도리여서 행동거지와 주선하는 일이 모두 법도를 어김이 없는 것이다. 이는 공자께서 평생의 일을 스스로 진술하여 학문의 과정으로 삼아 차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이지지의 자질을 타고 났지만 배우지 않으면 성인이 될 수가 없으며 이른바 생이지지라고 하는 것도 배우기를 좋아하여 그런 명칭을 얻은 것임을 알 수 있다.¹⁸⁾

18) 申晟圭, 『遜庵集』 권5, 『論語講義』 「言學」 제16장. “志者 專心致之之謂 學 效也覺也

이 해석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志學·而立·不惑·知天命·耳順·從心所欲不踰矩 등을 모두 道와 연관하여 해석한 것이고, 하나는 生而知之의 자질을 타고 났더라도 배워야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후설은 앞에 인용한 정자·주자의 설과 다른 것으로, 손암이 자득을 통해 본지를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전설도 주자의 설과 비교해 보면 보다 분명함을 알 수 있다. 기실 志學·而立·不惑·知天命·耳順을 풀이한 주자의 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손암의 설은 구도적 측면에서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있어 이해하기 쉽다.

또 「위정」 제16장에 “子曰 攻乎異端 斯害也已”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范氏가 ‘攻’을 ‘專治’로 해석한 설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혹자가 주자에게 “학문을 할 적에는 專治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異端은 전치해서는 불가할 듯합니다.”라고 하자, 주자는 “이단의 설은 전치해서는 불가할 뿐만 아니라 대략 그 설을 이해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하였다.¹⁹⁾ 주자 이전 『論語注疏』에도 ‘攻’을 ‘治’로 해석하고 있으니, 주자는 이런 종래의 설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손암은 이 장을 해석하면서 대전본 소주의 주자설을 인용하고서, “이단의 설은 분변하여 그것을 밝혀야 옳다. 만약 그 설을 공격하기를 힘쓰면 이에 해가 될 뿐이다.”²⁰⁾라고 하였다. 이 해석은 주자가 ‘攻’을

言專心於效先覺之所爲 而有以自覺於道也 立 謂與道俱立也 有以自立 則欲罷不能 而其進有不容已也 不惑 謂覺得道理而無所疑惑也 知天命 謂事物之源委曲折 無不洞達 而知極其至也 耳順 謂不思而得也 從心所欲不踰矩 心卽理 欲卽道 動容周旋 無違度 此夫子自述其平生爲學程 歷以示人 於此 可見雖有生知之資 非學 不可以爲聖人 而所謂生知者 亦以好學而得名也”

19) 이러한 주자의 설은 『論語集註大全』小註에 실려 있다.

20) 申晟圭, 『遜庵集』 권5, 『論語講義』 「言學」 제53장. “異端之說 辨而明之 可也 若務攻

‘專治’로 해석한 것을 따르지 않고 ‘攻擊’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단의 설에 대해서는 공격하기보다는 분변하여 그 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또 「학이」 제10장에 “子禽問於子貢曰 夫子至於是邦也 必聞其政 求之與抑與之與 子貢曰 夫子溫良恭儉讓以得之 夫子之求之也 其諸異乎人之求之與”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집주에는 “五者 夫子之盛德光輝接於人者也……聖人過化存神之妙 未易窺測 然即此而觀 則其德盛禮恭 而不願乎外 亦可見矣”라고 하였다. ‘過化存神’은 『맹자』 「盡心上」 제14장의 ‘君子所過者化 所存者神’을 가리킨다. ‘溫良恭儉讓’에 대해 주자는 공자의 德容으로 보았다. 그러나 손암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온화하고 선량하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겸양하는 것은 성인의 中和의 덕이 사계절에 배합한 것이다. 온화함은 봄에 배합하고, 선량함은 여름에 배합하고, 검소함은 가을에 배합하고, 겸양함은 겨울에 배합하며, 공손함은 사계절 중앙에 유통한다. 성인은 이런 중화의 덕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당시 임금들이 스스로 덕을 좋아하는 양심을 발하여 찾아와 정사를 물은 것이니, 다른 사람들이 구하여 정사에 참여한 것과는 같지 않다.²¹⁾

이 해석의 핵심은 공자의 中和之德에 있다. 공자가 언제나 중화지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군주들이 찾아와 정사를 물었다는 것이다. 中和는 『중용』에 보이는 말로 희로애락이 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

擊 斯爲害也”

21)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出處交際」 제1장. “溫良恭儉讓 聖人中和之德 配乎四時者 溫配春 良配夏 儉配秋 讓配冬 而恭則流通于四者之中也 聖人有此中和之德 故時君自發好德之良心 而來問以政 非如他人之求而得之”

명정대한 중도의 마음을 유지하고, 희로애락이 발할 적에는 모두 중도에 맞게 하여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손암의 해석은 ‘濼良恭儉讓’을 중화의 덕이 발현된 것으로 본 것이 특징이다. 이 해석은 주자가 ‘德容’으로 해석한 것보다 한층 심도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종래의 설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본지를 자득한 것들이다. 그런데 손암이 자득한 설 가운데는 현실생활 속에서 스스로 자각한 것도 있다. 「자한」 제13장에 “子欲居九夷 或曰 陋 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집주에는 “君子所居則化 何陋之有”라고만 하였다. 이에 대해 손암은 “해외의 九夷에도 혹 행할 만한 도가 있다. 비유컨대 도읍에 사는 사람들은 사기와 거짓이 날로 심하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순박하여 오히려 흠어지지 않고 살고 있다.”²²⁾라고 하였다. 이 해석은 주자의 설처럼 당위론적으로 군자는 어느 곳에 처하든 그곳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손암이 자기시대의 실상을 경험적으로 반추하여 본지를 해석한 것이다.

또 「자로」 제12장에 “子曰 如有王者 必世而後仁”이라 하였는데, 주자는 “仁謂教化浹也”라 주해하고, 정자가 “漸民以仁 摩民以義 使之浹於肌膚 淪於骨髓 而禮樂可興 所謂仁也”라고 한 말을 인용해 놓았다. 이 두 설은 모두 왕도정치를 펴는 자의 教化가 백성들에게 충분히 미친 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런데 손암은 “仁은 한 사람도 수심을 갖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한다.”²³⁾라고 하였다. 이 설은 王者의 교화에 초점을 맞춘

22)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出處交際」 제17장. “海外九夷 容有可爲之道 譬如都邑之人 詐僞日滋 而鄙野之間淳樸 猶有不散”

23)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治法」 제12장. “仁謂無一人有愁痛底事”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다.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면 “만약 왕도정치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백성들이> 仁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 되니, ‘仁’ 자의 주어는 ‘民’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王者의 教化에 초점을 맞춘 정자·주자의 해석보다 民에 초점을 맞춘 손암의 해석이 보다 명확하다. 또한 仁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의 文勢로 보면 백성의 마음이 순후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손암은 보다 현실생활 속의 정서로 읽어낸 것이다. 이 해석은 손암의 경서연구가 실생활에 바탕을 두어 자득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나) 文脈을 중시한 本旨探究

손암의 해석에는 문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 새로운 의미발명이 종종 눈에 띈다. 「향당」 제8장에 “不撤薑食 不多食”이라 하였는데, 주자는 이를 2절로 나누어 뒤의 절을 “適可而止 無貪心也”라고 하였다. 그런데 손암은 “이 절은 생각을 많이 잡숫지 않았다.”²⁴⁾라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은 「향당」 제8장 앞부분에서 밥에 대해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고기·술·생각을 드시는 일을 기술하고서 다시 “밥을 많이 잡숫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체 문맥상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향당」 제8장을 문맥 속에서 보면, ‘不多食’을 주자처럼 해석하는 것보다 손암처럼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또 「위정」 제24장에 “子曰 非其鬼而祭之 諂也 見義不爲 無勇也”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이를 2절로 나누어 해석하면서 뒤의 절에 “知而不爲 是無

24) 申晟圭, 『遜庵集』 권5, 『論語講義』 「言存養」 제6장. “言不多食薑”

勇也”라고 하였다. 그런데 손암은 이 2절을 하나로 합해 “자기 조상의 귀신이 아닌 줄을 알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義가 된다. 그런데도 그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²⁵⁾라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은 한 장의 전체 문맥 속에서 各節을 해석하고자 한 산물로, 종래의 설과 다른 의리발명이다.

또 「공야장」 제13장에 “子路有聞 未之能行 惟恐有聞”이라 하였는데, 주자는 “前所聞者 既未及行 故恐復有所聞 而行之不給也”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손암은 “뒤에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에 들은 것을 극진히 행하는 데 미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자로의 ‘들으면 곧바로 행하고자 하는 용기’가 이와 같다.”²⁶⁾라고 하였다. ‘들으면 곧바로 행하고자 하는 용기’는 「선진」 제20장의 “子路問聞斯行諸 子曰 有父兄在 如之何其聞斯行之”를 가리킨다. 손암의 이 해석은 아직 실천하지 못한 전에 들은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본 것이다.

또 「공야장」 제24장에 “子曰 巧言令色足恭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匿怨而友其人 左丘明恥之 丘亦恥之”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집주에는 程子和 謝氏의 설을 인용해 놓았을 뿐 별다른 해석이 없다. 손암은 이에 대해 문맥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巧言·令色·足恭·匿怨而友는 비록 네 가지 일이지만 혈맥이 서로 통한다. 교언·영색은 주공의 태도이고, 익원이우는 ‘무슨 말을 한들 교묘하지

25) 申晟圭, 『遜庵集』 권5, 『論語講義』 「言力行」 제13장. “知非其鬼 則不祭之爲義 而猶且祭之 是無勇也”

26) 申晟圭, 『遜庵集』 권5, 『論語講義』 「言力行」 제18장. “非恐後之有聞 實恐前聞之未及盡行也 其聞斯行之勇 如是”

않겠으며 어떤 얼굴빛을 한들 좋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뜻이다. 이에 교언·영색하는 자는 그 인품이 비천하여 부끄러워할 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심술도 음험하고 사특하여 두려워할 만하다는 점을 알겠다.²⁷⁾

이 해석은 4건의 일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일관된 문맥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 손암의 해석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 言外의 本旨 探究

손암의 안설에는 言外의 의미를 읽어내어 본지를 탐구한 해석이 있다. 「공야장」 제14장에 “子貢問曰 孔文子 何以謂之文也 子曰 敏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諡法 有以勤學好問爲文者 蓋亦人所難也 孔圉得諡爲文 以此而已”라고 하여 孔圉가 文이라는 시호를 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손암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謂之文’은 허락하지 않은 말이다. 부자의 의도는 “당시 사람들이 공문자에게 文으로 시호를 내린 것은 ‘그가 민첩하여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덕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文으로써 시호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공문자에게 과연 이런 덕이 있을까?”라고 하신 것이다. 모름지기 언외에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²⁸⁾

27)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交友」 제6장. “巧令足恭 匿怨而友 雖是四件事 血脉相通 巧言令色 是足恭之態 而匿怨而友者 何言不巧 何色不令 是知巧令者 不徒其人品之卑賤可恥 亦其心術陰譎之可怕”

28) 申晟圭, 『遜庵集』 권5, 『論語講義』 「言致知」 제38장. “謂之文也者 未許之辭 夫子之意 以爲當時諡文子以文者 謂有敏而好學不恥下問之德 故諡之以文 然文子果有此德否耶 須知言外有意”

이 해석은 주자의 해석과 상반되는데, 그것은 언외의 의미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즉 ‘是以謂之文也’ 뒤에 ‘과연 그에게 이런 덕이 있을까?’라는 말이 생략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종래의 설과 다르지만 일설로 갖추어 놓을 만한 설이다.

또 「위령공」 제1장 제2,3절에 “在陳絕糧 從者病 莫能興 子路慍見曰 君子亦有窮乎 子曰 君子固窮 小人窮 斯濫矣”라고 하였는데, 집주에는 “濫 溢也 言君子固有窮時 不若小人窮則放溢爲非”라고 한 何晏의 설을 실어놓았다. 이에 대해 손암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자료가 “군자도 곤궁할 때가 있습니까?”라고 하자, 부자께서 답하시기를 “군자와 소인 모두 곤궁할 때가 있다. 군자는 곤궁할 적에 의지를 견고히 하지만, 소인은 곤궁하면 이에 외람된 짓을 한다.”라고 하셨다. 위의 1절을 말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앞에서 말한 데에 있다.²⁹⁾

‘위의 1절’은 ‘군자와 소인은 모두 곤궁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손암은 이 1절을 언외의 의미로 보아 위와 같이 해석한 것이다. 원문의 ‘固窮’을 何晏은 ‘固有窮時’로 해석했고, 程子は ‘固守其窮’으로 해석했는데, 손암은 정자의 견해를 따라 해석한 것이다.

또 「자로」 제2장에 “仲弓爲季氏宰 問政 子曰 先有司 赦小過 舉賢才”라고 하였는데, 손암은 “仲弓爲季氏宰”는 ‘중궁의 어짊으로써 오히려 계씨의 가신이 되었다.’는 말이다. 언외에 의미가 있다.”³⁰⁾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

29)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出處交際」 제14장. “子路言君子亦有窮時乎 夫子答云 君子小人 皆有窮時 君子固窮 小人窮 斯濫矣 不言上一節而意在言前”

30)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治法」 제8장. “仲弓爲季氏宰 以仲弓之賢而猶爲季氏宰 言外有意”

도 언외의 의미를 읽어내 종래의 설과 달리 해석한 것이다.

언외의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은 종래에 잘 나타나지 않는 해석방법인데, 이는 行間의 숨은 뜻을 考究하거나 생략하여 말하지 않은 의미를 찾아 해석하는 방법이다.

3) 『論語集註』와 다른 해석

손암의 안설에는 이상학의 지적처럼 전인이 발명하지 못한 의리를 발명한 것이 상당히 많다. 그 가운데는 주자의 집주의 설과 다른 것이 다수 발견된다. 그렇다고 손암이 『논어집주』의 설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논어집주』의 설을 수용하여 근간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의리를 발명해 놓은 것이다.

가) 程朱說과 다른 설 제시

손암의 안설에는 程子·朱子の 설과 다른 견해를 피력해 놓은 것이 다수 있다. 「이인」 제16장에 “子曰 君子 喻於義 小人 喻於利”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喻’를 ‘曉’로 해석하면서 程子の “君子之於義 猶小人之於利也 惟其深喻 是以篤好”라는 설을 인용해 놓았다. 이에 대해 손암은 “군자가 좋아하는 것은 義이고, 소인이 좋아하는 것인 利이다. 오직 그들은 그것을 돈독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매우 밝은 것이다.”³¹⁾라고 해석하였다.

얼핏 보면, 이 해석은 정자가 ‘惟其深喻 是以篤好’라고 한 설을 ‘惟其篤好 是以深喻’로 바꾸어 놓은 듯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손암의 설은 ‘好’

31) 申晟圭, 『遜庵集』 권5, 『論語講義』 「言君子」 제7장. “君子之所好者 義 小人之所好者 利 惟其篤好 是以深喻”

자로부터 ‘喻’ 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정자의 설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암의 설처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이치에 밝다.’고 보는 편이 논리적으로 순조롭다.

「팔일」 제5장에 “子曰 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라고 한 문장은 해석상 이설이 많다. 집주에는 정자의 “夷狄 且有君長 不如諸夏之僭亂 反無上下之分也”라는 설과 尹氏의 “孔子傷時之亂而歎之也”라는 설을 인용해 놓았는데, 손암은 당나라 때 韓愈의 「原道」에 “諸侯用夷禮則夷之 夷而進於中國則中國之 經曰 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夷狄의 예악을 사용하면 비록 君長이 있더라도 중원의 여러 나라에 군장이 없는 것만 못하다.”³²⁾라고 해석하였다.

위 문장은 ‘不如’를 ‘~와 같지 않다’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만 못하다’라고 볼 것인가의 차이인데, 정자는 전자로 본 것이고, 손암은 후자로 본 것이다. 이 두 가지 설을 두고 어느 설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손암은 정자의 설과 견해를 달리하여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또한 손암이 주자의 설에 이견을 제시한 것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자한」 제20장에 “子謂顏淵曰 惜乎 吾見其進也 未見其止也”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顏子既死 而孔子惜之 言其方進而未已也”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손암은 “止’는 성취하여 그칠 곳에 이른 것을 말한다. 대개 안회가 바야흐로 진보하였는데 그칠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애석해 하신 것이다.”³³⁾라고 해석하였다. 주자는 안회의 학문이 진보하여 중지하지 않은 것으로 해

32)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治法」 제2장. “韓文公原道 用夷狄 雖有君長 反不如諸夏之亡”

33) 申晟圭, 『遜庵集』 권5, 『論語講義』 「言學」 제13장. “止言成就到止處也 蓋惜其方進而未到得止處地位”

석한 반면, 손암은 至善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자장」 제3장에 “子夏之門人 問交於子張 子張曰 子夏云何 對曰 子夏曰 可者與之 其不可者拒之 子張曰 異乎吾所聞 君子尊賢而容衆 嘉善而矜不能 我之大賢 與於人 何所不容 我之不賢 與人將拒我 如之何其拒人也”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子夏之言迫狹 子張譏之 是也 但其所言 亦有過高之弊”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손암은 “자하의 말은 급박하고 협소하여 그 폐단이 작지만, 자장의 말은 지나치고 고원하여 그 폐단이 크다.”³⁴⁾라고 해석하였다.

주자는 자장이 자하의 말을 迫狹하다고 비판한 것을 인정하면서 자장의 말에도 過高한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니, 자장의 말을 어느 정도 허여한 것이 된다. 그런데 손암은 오히려 자하의 말의 폐단보다 자장의 말의 폐단이 더 크다는 점을 말하여 주자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손암의 해석에는 지나치거나 고원한 해석을 경계하는 학문정신이 투영되어 있다.

또 「미자」 제6장에 “長沮桀溺 耦而耕 孔子過之 使子路問津焉”이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耦 並耕也”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손암은 “耦’는耒이니, 이는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것을 말한다. 대개 장저와 걸익이 함께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았기 때문에 아울러 말한 것이지, 한 곳에서 함께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래 문장을 살펴보면 그런 점을 알 수 있다.”³⁵⁾라고 해석하였다. 즉 주자는 둘이 함께 쟁기질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손암은 각자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손암은 그

34)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交友」 제23장. “子夏之言 迫狹而其蔽小 子張之言 過高而其蔽大”

35)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出處交際」 제36장. “耦 耒也 謂以耒而耕也 盖沮溺 俱以耒而耕 故并言之 非一處并耕也 詳下文 則可知矣”

증거로 자료가 장저에게 먼저 나루터를 물었고, 그가 가르쳐주지 않자 다시 걸익에게 물어본 뒤의 내용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

또 「태백」 제15장에 “子曰 師摯之始 關雎之亂 洋洋乎盈耳哉”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孔子自衛返魯而樂正 適師摯在官之初 故樂之美盛如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손암은 “오늘날의 음악이 무너져 그와 같지 않은 것을 탄식하신 것이다.”³⁶⁾라고 하여, 옛날 摯가 太師가 되었을 때 음악이 성대했던 점을 회상하며 탄식하는 말로 보았다.

나) 諸家說과 다른 설 제시

손암의 안설에는 『논어집주』에 수록된 諸家の 설에 대해서도 이견을 피력한 것이 있다. 「양화」 제15장에 “子曰 鄙夫 可與事君也與哉 其未得之也 患得之 既得之 患失之”라고 하였는데, 집주에는 구설인 何晏의 “患得之 謂患不能得之”라고 한 설을 인용해 놓았다. 이에 대해 손암은 “患得之는 어떻게 하면 그 벼슬자리를 얻을까를 말하는 것이니, 이로써 마음속 걱정거리를 삼는 것을 말한다.”³⁷⁾라고 해석하였다. 이 설은 대의로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손암의 설이 원문에 보다 충실히 해석이다.

또 「헌문」 제44장에 “子曰 上好禮 則民易使也”라고 하였는데, 집주에 인용된 謝良佐의 설에는 “謝氏曰 禮達而分定 故民易使”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손암은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백성들도 윗사람의 명령을 업신여기지 않아 부리기 쉽다.”³⁸⁾라고 하였다. 사랑

36)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世道」 제8장. “歎今之樂壞 不能如此”

37)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臨政處事」 제25장. “患得之 謂何以則得之也 以是爲心患”

38) 申晟圭, 『遜庵集』 권6, 『論語講義』 「言治道」 제17장. “上好禮而不慢民 民亦不慢上命”

좌의 설은 다분히 관념적인 해석인데 비해 손암의 설은 인정의 실제에 나아가 해석하여 펴진하게 다가온다.

다) 『論語集註』 이외의 설 인용

손암의 안설에는 『논어집주』의 설을 지지하지 않고 그 이외의 설을 지지한 것이 종종 있다. 그중에는 주자와 논쟁을 한 陸九淵의 설을 인용한 것도 있고, 대전본 소주에 실린 후인의 설도 있으며, 명나라 때 학자 歸有光의 설도 있다.

「선진」 제17장에 “柴也愚”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智不足而厚有餘”라고 해석하고서 『공자가어』에 보이는 子羔의 행실을 기록해 놓았다. 즉 ‘愚’를 지혜는 부족하지만 행실이 뛰어난 점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암은 “陸象山 以柴愚 擬於顏子之愚”라는 설만 인용해 놓았다. 즉 손암은 육구연의 설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顏子之愚’는 「위정」 제8장에 보이는 “子曰 吾與回言終日 不違 如愚 退而省其私 亦足以發 回也不愚”를 가리키니, 이 경우의 ‘愚’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 「위령공」 제37장에 “子曰 事君 敬其事而後其食”이라 하였는데, 손암은 대전본 소주에 보이는 胡氏의 “後其食者 盖委置之 不存乎念慮之間”이라는 설만 인용해 놓았다. 주자는 집주에 “後 與後獲之後同”이라고 하여, 「용야」 제22장의 “仁者 先難而後獲”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주자의 설에 비해 호씨의 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인데, 손암은 호씨의 설을 택하여 그 의미를 더 강조하였다.

또 「태백」 제1장에 “子曰 泰伯 其可謂至德也已矣 三以天下讓 民無得而稱

而易使也”

焉”이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집주에는 태백이 왕위를 사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놓았다. 원문의 ‘民無得而稱焉’에 대해 주자는 “其遜隱微 無迹可見也”라고만 주석해 놓았다. 그런데 손암이 인용해놓은 명나라 때 학자 歸有光의 설에는 “泰伯之去 不待傳位之日 而先于採藥之時 此 民無得以稱焉 若伯夷 讓于父卒之後 則民有可稱者 讓國而曰以天下讓者 國與天下 常言之通稱也”라고 하였다. 이 설은 귀유광의 『震川集』 別集 권1 「泰伯至德」에 보이니, 손암이 『진천집』을 보고서 이 설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 취한 듯하다.

주자의 설은 태백이 왕위를 遜讓한 것이 은미하기 때문에 볼 만한 자취가 없어 백성들이 일컬을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인 반면, 귀유광의 설은 태백이 주나라를 떠난 것이 왕위를 물려주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일컬을 만한 덕이 없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역사적 시점을 따져서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손암이 주자의 설은 취하지 않고 귀유광의 설을 취한 것은 이런 점에 더 신뢰성을 두었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손암의 학문적 지향은 당대 학풍을 반성하면서 경서의 심오한 본지를 밝혀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한편으로는 당송고문을 근간으로 하여 清新俊逸하고 雄建溫厚한 문장을 이룩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논어』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전인이 발명하지 못한 본지를 발명하였다.

손암의 『논어강의』는 그가 평생의 정력을 바쳐 이룩한 학문적 성과라 할 수 있는데, 그 특징과 의의를 체제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특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자의 『논어집주』를 저본으로 하여 『근사록』의 체제를 본떠 17개 주제에 맞추어 체제를 개편하였다. 이는 『논어』를 해체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종전에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경우이다. 둘째, 1章을 分章하여 내용 중심으로 재배치하기도 하였다. 이는 종래의 『논어』를 내용 중심으로 일부 개정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셋째, 주자의 『논어집주』를 위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대전본 소주 및 육구연·귀유광 등의 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논어집주』의 설만을 추종하지 않고 폭넓게 다양한 설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전대의 설 가운데 본지를 밝힌 설 위주로 취사선택하고 있다. 이는 『논어집주』의 설 가운데서 다시 선택한 것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다섯째, 자신의 견해를 按說로 附記하여 본지를 더 심도 있게 해석하였다. 이는 종래의 설을 바탕으로 새롭게 의리를 발명해 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특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종래 해석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지를 더 명확히 해석하거나 심도 있게 해석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둘째, 독자적으로 의리를 발명한 것이 다수 있다. 그 가운데는 자득을 통해 본지를 해석한 것, 문맥을 중시하여 본지를 해석한 것, 언외의 본지를 탐구한 것 등이 있다. 이는 전인이 밝히지 못한 의리나 본지를 새롭게 발명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셋째, 『논어집주』와 다른 해석을 한 것이 다수 있다. 그 가운데는 程子·朱子の 설과 다른 해석, 諸

家說과 다른 해석, 『논어집주』 이외의 설을 제시한 것 등이 있다. 이는 손암의 『논어강의』 해석이 『논어집주』의 설만을 추종하지 않고 異見을 제시하거나 異說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의 폭이 넓고 다양해졌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논어강의』의 해석의 특징은 경학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종래의 『논어』를 해체하여 『근사록』의 체제를 본떠 재구성한 유일한 작품이다. 우리나라 『논어』 해석사에서 종래의 『논어』를 해체하여 재구성한 것이 없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張顯光(1554-1637)의 「論語圖」에 各章을 내용 중심으로 분류해 도표로 그려놓은 것이 유일한데, 손암은 내용 중심으로 도표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근사록』의 체제를 본떠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논어』 해석사에서도 전에 없던 해석이다. 둘째, 주자의 『논어집주』를 근간으로 하여 본지에 적합한 설을 취사선택하였다. 이는 집주의 諸說 중에서 다시 가려 뽑아 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주자의 『논어집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주자의 설만을 절대존신하던 학풍 속에서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한 사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심층적으로 본지를 해석하거나 독자적으로 의리를 발명하여 『논어』 해석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였다. 이는 『논어』 해석이 근대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시야를 열어놓은 것이다.

손암의 『논어강의』의 한계로는 주자의 『논어집주』를 텍스트로 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자의 주석 이외의 설을 폭넓게 수용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조선시대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도 폭넓게 참고하여 함께 거론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申晟圭, 『遜庵集』, 문중기념사업회 영인본, 1984.
班 固, 『漢書』 「藝文志」.
魏 徵 等, 『隋書』 「經籍志」.
朱 熹, 『論語集註』, 학민문화사 영인본.
胡 廣 等, 『論語集註大全』, 학문문화사 영인본.
蔣伯潛, 『經與經學』, 上海書店出版社, 1997.
楊伯俊, 『論語譯注』, 中華書局, 1980.
강동욱, 「性齋 許傳의 江右地域 門人 考察」, 『남명학연구』 제31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1, 208쪽.
최석기, 『星湖의 大學·中庸 解釋과 意味』, 『성호 이익 연구』, 사람의무늬, 2012, 22~27쪽.

Abstract

A Study on *Lectures on Analects of Confucius* by Sonam Shin Seong-gyu

Choi, Seok-Ki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Lectures on Analects of Confucius* by Sonam Shin Seong-gyu through its analysis. The main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Lectures on Analects of Confucius was Sonam's academic achievement to which his lifelong enthusiasm was devoted. The study examined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in terms of system and content and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for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in terms of form, first, it was based on *Collection of Analects of Confucius* by Zhu Xi, modeled itself on *Geunsarok*, and reorganized the system according to 17 topics. It deconstructed and reorganized *Analects of Confucius*, thus presenting a very unique, unprecedented case. Second, it divided Chapter 1 and placed it at the center of content, which is significant in that it partially revised *Analects of Confucius* with a focus on content. Third, it employed Daejeonbon Soju and theories of Yuk Gu-yeon and Gui Yu-gwang when necessary while it was mainly based on *Collection of Analects of Confucius* by Zhu Xi, which indicates that he accepted various theories broadly instead of following only those of *Collection of Analects of Confucius*. Fourth, he mainly chose and employed the old theories whose main purports were revealed, which is significant in that he made a choice again among the theories of *Collection of Analects of Confucius*. Finally, he added his own opinions and thus interpreted the main purports with more depth, which is significant in that he invented a new Uiri based on the old theories.

As for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in terms of content, first, it

interpreted the meanings of the body in a more profound and clearer fashion, which is significant in that it supplemented the lacking aspects of the old interpretations and provided clearer or more profound interpretations of main purports. Second, it presents many independent inventions of Uiri, which include the ones that interpreted the main purports through self-complacency, interpreted the main purports with an emphasis on the context, or explored the unexpressed main purport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invented new Uiri or main purports that the previous scholars could not shed light on. Finally, it offers many different interpretations from *Collection of Analects of Confucius*, which includes different interpretations from the theories of Jeongja and Zhu Xi or Jegaseol and theories other than *Collection of Analects of Confucius*. It is significant in that Sonam proposed different opinions and accepted different theories in his *Lectures on Analects of Confucius* instead of merely following the theories of *Collection of Analects of Confucius*, thus becoming wider and more diverse in interpretations.

Those interpretative characteristics of *Lectures on Analects of Confucius* hold the following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Chinese classics studies: first, it is the only work that deconstructed the old *Analects of Confucius* and reorganized it based on the system of *Geunsarok*. Not only is it unique to Korea, but it also presents unprecedented interpretations in the interpretative history of *Analects of Confucius*. Second, it chose and employed the theories fit for the main purports based on *Collection of Analects of Confucius* by Zhu Xi, which reveals his intention to understand the main purports clearly by selecting among the many theories of *Collection of Analects of Confucius* again. Third, it employed various theories, not restricted to *Collection of Analects of Confucius* by Zhu Xi, which explains why he tried to do interpretations from a broader perspective in the middle of the academic tradition of absolute trust only in the theories of Zhu Xi. Finally, it interpreted the main purports in-depth or invented Uiri independently, thus expanding the horizon of interpretations of *Analects of Confucius* considerably, which opens a new way of thinking that *Analects of Confucius* can be re-interpreted from a new perspective as much as one wants even in modern times.

Key Word

Shin Seong-gyu, *Lectures on Analects of Confucius, Geunsarok*, system reorganization, invention of Uiri, in-depth interpretation

▪ 논문투고일 : 2015.7.13 심사완료일 : 2015.8.11 게재결정일 : 2015.8.14